

'김기동 매직' 서울... "울산 잡고 7게임 무패 가자"

오늘 2위 '울산 정벌' 출사표
팀 창단 첫 4연승 기세 몰이
난적 전북 꺾은 뒤 사기충천
울산까지 잡으면 선두 무적

2026 프로축구 K리그 개막 6경기 연속 무패를 내달린 FC서울의 '기동 매직'이 이번에는 '울산 정벌'을 노린다. 김기동 감독이 지휘하는 서울은 15일 오후 7시 30분 울산문수경기장에서 김현석 감독이 이끄는 울산 HD와 하나은행 K리그 1 2026 2라운드 순연 경기를 치른다. 이번 경기는 애초 3월 7일 예정됐지만 서울의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16강 일정으로 연기돼 이날 열리게 됐다. 김기동 감독 부임 3년 차를 맞은 서울은 개막 6경기 무패(5승 1무)를 내달리며 승점 16을 쌓아 2위 울산(승점 13·4승 1무 1패)을 3점 차로 앞서며 선두를 질주한다. 올 시즌 초반 서울은 말 그대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모양새다. 서울은 3월 22일 광주FC와 5라운드 홈 경기에서 5-0 대승을 거두며 창단 이후 처음으로 개막 4연승을 내달렸다. 아쉽게 4월 5일 FC안양과 원정에서 1-1로 비겨 5연승이 좌절됐지만, 11일 '난적' 전북 현대를 상대로 후반 추가시간 클리 말라의 극장골에 힘입어 1-0 승리를 따내고 개막 6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서울은 2017년 7월 2일(2-1 승) 이후 무려 3205일 만에 전북을 안방에서 무너뜨리는 기쁨을 만끽했다. 이제 개막 7연승을 노리는 서울의 시선은 울산으로 향한다. 전북을 꺾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선두 경쟁을 펼치는 울산까지 물리치면 '기동 매직'의 상승세는 정점을 찍게 된다. 서울은 6경기를 치르면서 12골을 쏟아내 경기당 평균 2골의 뛰어난 골 결정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실점은 단 3골(경기당 0.5실점)로 틀어막아 최적의 공수 밸런스를 자랑한다. 올 시즌 서울 유니폼을 입은 폴란드 출신 공격수 클리말라는 최근 3경기 연속골(4골)을 몰아쳐 상승세의 일등 공신 역할



김기동 FC서울 감독이 팬들 앞에서 세리머니하고 있다.

을 맡은 가운데 이승모, 조영욱, 로스가 2골씩 뽑아내며 상승세를 뒷받침하는 중이다. 이에 맞서는 울산도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여준다. 개막 3연승으로 서울과 팽팽하게 겨루다 5라운드 김천 상무전에서 0-0으로 비기고 6라운드 전북전에서 0-2로

시즌 첫 패배를 맞았지만, 인천 유나이티드와 7라운드에서 2-1 승리를 따내 반전에 성공했다. 울산은 6경기에서 9골(경기당 1.5골)에 5실점(경기당 0.83실점)으로 선전하며 선두 추격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올 시즌 북극한 스트라이커 야고의 발끝이 매섭다.

그는 개막전 멀티골을 합쳐 3경기 연속골을 터트린 뒤 2경기에서 침묵하다 인천을 상대로 득점포를 재가동하며 5골로 K리그 득점 랭킹 2위를 달리고 있다. 따라서 서울과 울산의 이번 맞대결에선 클리말라와 야고의 '골잡이 맞대결'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글·사진·연필뉴스**

손아섭, 두산으로 이교훈과 맞교환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베테랑 좌타자 손아섭(38·사진)이 두산 베어스로 이적한다. 한화는 14일 "손아섭과 두산 원손 투수 이교훈(25)을 맞바꾸고 현금 1억5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손아섭은 지난해 7월 NC 다이노스에서 한화로 트레이드됐으며 한화에서 약 8개월 짧은 여정을 마치고 두산 유니폼을 입게 됐다. 지난 시즌 NC와 한화에서 뛰며 타율 0.288(372타수 107안타)을 기록한 손아섭은 이번 시즌에는 1군 경기에서는 개막전 대타로 한 차례 나와 1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한화가 지난 시즌이 끝난 뒤 강백호를 자유계약선수(FA)로 영입하며 입지가 좁아졌고, 한화와 1년 1억 원에 재계약한 이후 2군 경기에 세 차례 출전, 타율 0.375(8타수 3안타)의 성적을 냈다. KBO리그 통산 최다 안타 1위(2618개)를 달리는 손아섭은 두산으로 옮기면서 다시 출전 기회를 잡아 최다 안타 경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삼성 라이온즈 최형우가 2599개 안타를 때려내며 손아섭을 19개 차로 바짝 추격한 상황이다. 두산에서 한화로 옮기는 이교훈은 2000년생으로 2020년부터 두산에서만 뛰었다. 지난 시즌 성적은 10경기에 나와 1승, 7%이닝 평균자책점 1.17의 성적을 냈다. 올해는 2군에서 7경기 등판, 홀드 1개와 평균자책점 2.70을 기록 중이다.



U-20 여자축구 이번엔 北 잡는다

한국 축구가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20세 이하(U-20) 여자 아시안컵 결승 길목에서 두 번째 남북 대결을 펼친다. 박윤정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5일 오후 6시 태국 배툼타니 스타디움에서 북한을 상대로 대회 4강전을 치른다. 이 연령대에서 한국은 북한에 크게 열세를 보인다. 이 대회에서만 8차례 만나 7번 지고 딱 한 차례 이겼다. '여자 챔피언십'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지던 2013년 대회에서 이금민(버밍엄시티)과 장슬기(경주한수원)의 골로 2-1 승리를 거둔 게 유일하다. 이때는 토너먼트 없이 리그로만 우승팀을 가렸다. 이후 한국은 북한에 3연패를 당했다. 특히 직전 두 대회에서 잇달아 준결승에서 패했다. 한국은 태국에서 열린 2019년 대회 준결승에서는 1-3으로 졌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치러진 2024년 대회 준결승에



한국 U-20 여자축구 대표팀(왼쪽)과 북한팀.

서는 0-3으로 완패했다. 스피드와 기술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는 북한에 밀려 잇달아 4강 성적에 만족해야 했다. 이번 대회 북한은 더 강력해 보인다. 2년 전 세계를 제패했던 멤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북한은 2024년 AFC U-17 여자

아시안컵에서 우승한 뒤 그해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열린 FIFA U-17 여자 월드컵에서 8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바 있다. 한국은 이미 이번 대회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북한에 0-5로 완패하며 경기력의 격

오늘 아시안컵 준결승 재격돌 조별리그 0-5 참패 설욕 다짐

차를 실감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로는 7골로 대회 득점 레이스 선두를 달리는 박옥이가 첫손에 꼽힌다. 박옥이는 조별리그 남북전에서는 멀티골을 터뜨렸다. 북한의 공격력은 무시무시하다. 조별리

그에서 19득점, 무실점으로 3전 전승을 거뒀고, 호주와 8강전에서는 3-0으로 이겼다. 이번 대회 유일한 무실점 팀이다. 한국은 2승 1패, 4득점 6실점으로 조별리그 2위에 올라 토너먼트에 진출했고, 8강전에선 태국과 연장전 끝에 2-1로 이겼다. 한국으로서는 물살틈없는 수비를 펼쳐 북한의 맹공을 최대한 막아야 승산이 있다. 그리고 한 번은 찾아올 득점 기회를 이하는(위덕대), 진혜린(고려대) 등 공격진이 살려내야 2004년, 2013년 대회에 이은 역대 3번째이자 13년 만의 우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한국은 이번 대회 4강에 진출하면서 9월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2026 FIFA U-20 여자 월드컵 출전권을 따내는 '1차 목표'를 달성했다. 박 감독은 태국전 뒤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골 결정력은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수비 조직력도 흐트러진 모습이였다. 준결승전을 앞두고 우리의 감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인한서 플러스
관절영양제의 혁명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